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9년 9월 15일 | 총권 49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락골길 164-24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이하 학도넷)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을 외치며 출범한지 15년이 되었다. 본인은 학교도서관을 담당했던 인연으로 학도넷의 출범과 활동을 가까이에서 응원했다. 책을 사랑하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운동가들은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했고 이런 노력이 범국가적인 독서운동에 불씨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란 명칭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독서교육이 언급되었을 때 독서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던 사람들은 우려를 했다. 범교과 독서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 자칫 교과 국어과에 한정되어 독서교육이 전개될까 하는 걱정이었다. 문학작품 조차도 일부만 실릴 수밖에 없는 교과서 읽기 자료로는 긴 호흡으로 해야 하는 독서교육을 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의 완성되어갈 무렵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나왔다.

2015년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한 단원 모두 읽기 자료를 넣지 않고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도록 구성하라는 지시였다. 교과서 집필자로 편집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낼 때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의견이 수정되었던 차에 이런 취지의 지침은 한마디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취지대로 교과서에 구현되지 않으면 검인정 심사에서 탈락이라는 평가원 설명은 기존 교과서 내용과 방식대로 집필하던 교과서 편집 방향을 크게 수정하게 했다. 덕분에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교과서와 별도로 진행되었던 많은 독서활동이 교과서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구현되었다.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수업에서 좋은 책과 아이들이 만나야 한다. 모든 교과에서 각 교과와 관련된 온전한 한 권의 책을 읽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은 교과수준 성취기준이 있는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에 독서교육이 들어와야 했다. 국어과가 그 시작을 한 것이다. 성취기준을 통합하고 지식 위주가 아닌 사고 위주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긴

시간을 확보해서 학교도서관과 함께 각자 한 권의 책을 읽도록 안내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 권은 최소 한 권으로 부담을 줄여주어 실천하게 하고자 함이다. 함께 읽기도 좋고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어도 좋다. 함께 읽는다면 함께 활동하기가 좀 수월하고 각자가 읽는다면 각자 읽은 책을 통해 더 다양한 책을 친구들과 공유해서 좋다. 이제 ‘교과서 나가기도 바쁜데,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해서, 책이 없어서, 시험 진도 나가기도 어려운데…….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성장하던 독서교육과 독서운동에 방해가 되면 어쩌나 하던 기존의 우려가 조금은 불식되었다. 물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실천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과서의 사실적, 분절적 지식 전달과 습득에 제한되지 않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교과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라는 교육부 문서에서 보이는 2015년 교육과정 정신이 한 권 읽기로 아주 빠르게 학교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독서운동에 힘써 왔던 독서운동가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끈질기게 펼쳤던 독서운동이 이제야 학교 현장에서 일부 뜻을 같이하는 교사가 아닌 교과를 담당하는 전 교사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관심이 질 좋은 독서수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책 읽기는 자기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자존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자기에 대한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성찰하는 능력이 개발되게 도와준다. 함께 읽는 책 읽기는 답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기르게 하고 팀원이 되어 협동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책 읽기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도 길러준다. 2015년 교육과정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실천되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책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생각하게 하기를 기대한다.

강애라 | 미양중학교 국어교사 / 학도넷 공동대표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학도넷 책증정 행사 참여 서평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민수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별가람고등학교 도서관 '늘봄'은 진화하고 있어요

- 객정은(별가람고등학교 사서교사)

신설 4년 차, 비어있는 도서관

우리 별가람고등학교는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2016년 개교한 신설 4년 차로 학생 수는 약 550명인 학교다. 도서관 이름은 '늘봄'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늘 책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용순체육선생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다. 2층에 위치한 도서관 늘봄은 2-3층 복층이다. 2층 늘봄1에는 대출/반납대, 서가, 책상, 검색대가 있다. 또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공간이 있는데 카페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 아이들은 이 공간을 좋아한다. 3층 늘봄2에는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가 있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책 읽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도서관이 복층이라 멋있어 보이지만 사서가 관리하기에는 불편하다. 도서관을 늘봄1, 2 두 공간으로 나누어 도서관 이용 및 활용수업을 활발히 진행한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도서관을 더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신설학교라 3년 넘게 사서교사가 없었다. 도서관 담당 선생님과 8명의 도서부원이 점심시간에 잠시 문을 열었을 뿐이다. 아이들은 도서관이 내내 열려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언제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열람하기 힘들었다. 한마디로 도서관의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협력문고로 받은 1,500권까지 합친다 해도 장서는 약 5,500권 정도에 불과하다. 교과와 진로수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점차 도서관에 양질의 책을 서가에 꽂으려 한다.

발도장 개관행사, 결과는 대박!!!

2019년 5월 29일 처음으로 도서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열렸다. 물론 아이들은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내가 사서선생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과 선생님이 잠깐 문 열었나보다 생각했다. 점심시간에도 2-3명 밖에 오지 않는 도서관. "안~돼!!" 뭔가 탈출구가 필요했다. 한 달이라는 길다면 긴 도서관 개관행사를 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발도장짜기!!! " 쌤~! 저 왔어요." 1, 2, 3교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들어서며 우리 예쁜 학생들이 나에게 건네는 말. "OO아~~반갑다. 어젠 잘 보냈어? 오늘 다시 보니 더 반가워!"라고 난 응답한다. 정말 밤사이 나쁜 일 없이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다행인가. 아이들이 발도장표 종이를 내게 건네면 난 스티커를 붙여준다. 5개, 10개, 15개, 20개 붙일 때마다 조그만 상품. 작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상품을 사랑받아 건넨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친구가 친구를 데려왔다. 점점 참여자가 늘어 점심시간엔 아이들이 줄지어 인사를 나눴다. 아이들은 도서관에 발도장을 찍고 나는 아이들과 눈도장을 찍고 점점 긴밀한(?) 사이가 됐다. 우리 도서부 학생이 " 쌤,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학교의 중심은 도서관, 도서관의 중심은 도서부

도서부원도 1학년 7명, 2학년 2명을 추가 선출했다. 지원서를 받아 서류전형에 면접까지 통과한 인재가 도서관에 합류했다. 현재 2학년 도서부가 중심이 되어 신입 도서부원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봉사동아리가 됐다. 편하게 대출/반납만 하며 봉사시간 받았던 아이들이 사서쌤이 주는 엄청난 일거리에도 " 쌤, 저희 3학년 때도 도서부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 든든한 지원군이다.

도서부원이 처음으로 '늘봄소식지'를 만들었다. 도서관 이모저모 소식에 날말피죽도 만들어 상품도 주고. 선생님들도 적극 지원, 참여해주셨다. 늘봄소식지 1호는 서명석 교장선생님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수정도 해주셔서 제대로 된 소식지가 되었다. 학교, 교사, 학생이 하나의 커다란 동그라미에 꼭 들어찬 느낌이다.

행복한 5분 글쓰기로 진짜 행복한 우리 별~학생들

2학기가 됐다. 행복한 5분 글쓰기는 8월~9월 20회 진행했다. 매일 사서교사가 글쓰기 주제를 제시하고, 그

날 참여한 학생은 공책에 주제 프린트를 붙이고 글쓰기를 한다. 참여 후 사서쌤은 매일 스티커를 붙여주고 조그만 간식을 준다. 학생이 쓴 글에 덧글을 달아주고 정의껏 주제에 맞게 자신의 스토리를 쓴 학생에게는 별★도 그려준다. 별★ 5개면 문화상품권. 역시나 아이들은 ★에 관심이 많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별★을 받을 수 있어요? 전 정말 한 바탕 열심히 썼는데요." 매일매일 열심히 글쓰기를 하면서 건조한 글이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자기 이야기를 쓰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덕분에 오후 내내 아이들 공책에 덧글달기가 즐거워진다.

스티커 5번째, 14번째 날은 Happy Day. 특별 간식을 주어 잠시 지친 우리 친구들이 다시 글쓰기에 매진할 힘을 준다. 10번째, 20번째는 특별상품, 그리고 10번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준다.

늘토 '책, 같이 읽고 함께 토론해요'

늘토는 친구 3-5명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자유롭게 책을 골라 읽거나 진로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한다. '함께'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함께 프로그램이다. 현재 6팀이 참가하며 12월에는 팀별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우수팀에게는 문화상품권 시상, 생활기록부 기록은 물론이다.

늘봄편의점 '책 읽고 간식 먹자'

곧 중간고사가 있다. 고등학생에게는 대입이 정말 중요하기에 이 한 번의 시험도 간절히 소중하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도서관에서는 '늘봄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책 읽고 간식 먹자'가 슬로건이다. 신착도서도 홍보하여 대출을 유도하는 행사다. 아이들에게 떡볶이, 짜장면, 핫도그, 폼나마스크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도서부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할 이 행사에서 물품은 쿠폰으로만 구입 가능하다. 쿠폰은 책 대출 한 권당 한 장, 희망도서 신청 시 한 권당 한 장, 5분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자 쿠폰 두 장, 늘토 참여팀 팀당 쿠폰 7장을 지급한다. 학생, 교사, 교직원 전체가 대상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손잡고 도서관 '늘봄편의점'을 삼삼오오 방문하기를 소망한다.

책 읽고 선물 받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별가람고등학교 도서관 늘봄은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도서부원이 가래떡을 교실로 배달하고 산타가 되어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 '책 읽고 선물 받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도서관 책벌레를 키우는 한 권 읽기”

- 김길순(울현중학교 사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울현중학교 도서관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있는 중입니다. 중학교가 처음이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한 도서관 생활은 꽤 오랫동안 조용한 나날이 지속되면서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책읽기 또한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로 여기는 아이들의 도서관 방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도서관은 책을 좋아하는 소수의 몇 명, 그리고 만화책을 보러 오는 아이, 수업 시간에 필요한 책을 찾아서 오는 아이 외에 책을 보고 대출하러 오는 아이가 드문드문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습관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 버린 것일까? ‘책을 읽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중학교 생활 진입 시기’라는 통계 결과의 말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책벌레를 키우기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한 권 읽기를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학급별 한 권 읽기(2015)

책벌레들이 와글와글한 도서관 활성화를 목표로, 우선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교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침 도서관이 속해 있는 인문사회부에서 ‘꿈나래’라는 독서기록장을 쓰게 하고 잘 쓴 아이들을 시상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기록하는 꿈나래 독서기록의 대부분은 학년별 필독 권장 도서 위주였다고 해서 학급별 한 권 읽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추천도서목록에서 적당한 책을 골라 학급별 35권을 준비하고 각 도서에 1번부터 35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학생의 학급 번호와 같은 책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학년별 3개의 책 바구니를 준비하고 일정 기간(2~3주) 후 반별 이동하도록 계획하여, 학급별 한 권 읽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둠별 한 권 읽기(2016~현재)

학급별 한 권 읽기의 장점은 도서관에 오지 않는 학생 옆에 늘 책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책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의무적으로 책을 읽게 만드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책을 읽히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여러 권 읽을 수 있고, 흥미가 없더라도 자신이 고른 책에는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학급별 한 권 읽기를 모둠별 한 권 읽기로 바꿔보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모둠별 읽기가 모둠토론 등의 독후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둠별 한 권 읽기 목록에 넣을 책을 고르기 위해 제가 먼저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은 책을 주제 또는 교과별로 분류하고 학

년별로 구분하여 목록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3개의 책바구니에 7종(7모둠)의 책을 5권씩, 총 35권으로 구성된 모둠별 한 권 읽기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서목록을 변경해 가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별 한 권 읽기(도서관 활용 수업)

각 학급에 한 권 읽기용 책바구니가 자리 잡으면서 교과 수업을 위해서도 책바구니를 요청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덕, 역사, 과학, 수학과 관련 도서, 시집, 진로 관련 도서 등 교과 수업에 활용할 도서는 각각 다른 도서로 35권, 학생별 한 권 읽기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2학년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1학년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독서 수업으로 1일 2시간, 도서관 활용수업으로 학생별 한 권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별 한 권 읽기는 책바구니에 담긴 책 중에 자신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고, 읽고 나서 또 다른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학생별 한 권 읽기로 마련된 책바구니를 통해 도서관을 마구 헤집어 놓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서관의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는 학생에게도 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일수록 읽고 싶은 책이 많아 고민이라고 하는가 하면, 읽지 않는 학생은 도서관의 많은 책 중에서도 읽을 책이 없거나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학급별 한 권 읽기가 학교 내 독서프로그램으로 정착

되면서 수업 시작 전에 실시하는 독서프로그램, 아침 독서도 활성화 되었습니다. 꿈나래 독서기록장에도 다양한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수백 개의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한 권 읽기에서 뻗어난 책읽기는 고맙게도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는 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갖지 못했을 뿐이지요. 책을 읽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중학교 시절, 좋아하는 친구처럼 옆에 둘 수 있는 ‘한 권 읽기’를 추천합니다. 사서 선생님이 먼저 읽고 도서목록을 선별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마치 내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는 것처럼 재미나게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는 것 또한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학교 도서관은 지금, 한 권 읽기에서 시작된 독서의 씨앗이 자라나서 예쁜 책벌레들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별 한 권 읽기 책바구니 예시〉



〈사례별 한 권 읽기의 좋은 점과 고민해야 할 점〉

사례별 한 권 읽기	좋은 점	고민해야 할 점
학급별 한 권 읽기	-책 선정이 비교적 수월하다.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학급별 독서 활동이 가능하다.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 -책을 의무적으로 읽게 한다.
모둠별 한 권 읽기	-주제별 또는 교과 과정과 연계한 책을 읽을 수 있다. -모둠별 독서 활동이 가능하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읽기 속도에 따라 여러 권 읽을 수도 있다.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 필요하다. -사서가 읽어야 할 책이 많다. -책을 선택할 기회의 폭이 좁다.
학생별 한 권 읽기	-개인의 독서 취향대로 책 선택이 가능하며 여러 권 읽을 수도 있다. -주제별, 교과별 다양한 책을 선정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을 깨워서 독자에게 찾아 보낼 수 있다.	-많은 책이 필요하므로 사서가 읽지 않은 책을 선정할 때도 있다. -모둠별 함께하는 독서활동이 불가능하다.

학도넷 책증정 행사 참여 서평



하늘을 나는 사자

사노 요코(지은이), 황진희(옮긴이)
천개의바람/ 2018년 2월

멋진 갈기와 멀리까지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사자는 낮잠을 자는 게 취미라고 말했다가 고양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고양이들이 생각하기에 사자라면 쉬지 않아도 항상 기운이 넘쳐야 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사자도 쉬고 싶었다. 피곤함을 감추고 늘 최선을 다해 고양이들을 대접하던 사자는 너무 힘들어 쓰러지듯 잠이 들고 밤이면 남몰래 눈물까지 흘린다. 어느 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된 사자는 그 자리에 쓰러져 돌이 되어 버린다.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그렇게 잠을 잔다. 지나가던 고양이가 옛날 옛적 멋진 갈기와 우렁찬 목소리의 사자는 너무 피곤하여 돌이 되어 잠들었다는 말을 한다. 사자는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다. 늘 애만 쓰면서 살 수는 없다. 휴식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어울리지 않는 취미를 가졌다고 비웃는 것, 게으른 사자라는 오해 따위 두려워할 것 없다. 황금빛 갈기를 가진 멋진 사자는 충분한 휴식으로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는 걸 알겠다.

- 신정화(경북 영주초등학교 방과후교사)



십대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전승민(지은이)/ 팜파스/ 2018년 5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많이 쓰이고 있다. 그저 로봇이 인간이 할 일을 대신 하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겠구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을 읽고나면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쉽게 알려준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도 알려준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앞으로 벌여

질 미래 사회에 잘 대비하는 것이 현명함을 일깨워준다. 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해치거나 지배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김상호(경기 공내중학교 교사)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

토마시 마우코프스키(지은이)
요안나 루시넥(그림), 최성은(옮긴이)
소원나무/ 2018년 1월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볼 수 없다는 것! 세상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의 눈이 열리는 것 아닐까? 눈으로만 보는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일곱 살 카밀! 그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카밀의 눈은 바로 손이다. 다른 신체기관으로도 볼 수 있기에 그의 가족은 그를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누나와 똑같이 대한다. 일반 학교에 다니고, 심부름도 하고, 누나와 재미있게 놀기도 한다. 하지만 친척과 다른 이들은 그를 달리 대한다.

보지 못하는 아이 카밀, 불쌍한 카밀!

책을 통해 장애에 대해 그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이은영(경기 백마초등학교 교사)



바다와 하늘이 만나다

테리 펜, 에릭 펜 (지은이), 이순영 (옮긴이)/ 북극곰/ 2018년 7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보고 살면 저 끝에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수평선의 경계가 흐릿하면서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바다인지 모르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 저 멀리 보이는 배의 불빛을 보면 배가 허공에 떠있는 것 같아서 몹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다의 끝엔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거기, 거기는 어떨까? 하는 상상력에서 시작됩니다.

소년 호는 바다에 나가기 위한 배를 만들고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을 찾아 떠납니다. 공간이 뒤섞이며 모든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일러스트를 보면서 더 큰 상상력을 갖게 합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거나 일을 시키지 말고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라. 이 책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바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 어딘가를 그리워하며 상상하게 됩니다.

- 김미니(강원 고성고등학교 사서교사)



달콤한 알

한영미(지은이)/ 소원나무/ 2018년 7월

수시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갈수록 진화하는 입시 부정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통해서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정언명령은 교육에 시사점이 크다.

이 책 『달콤한 알』은 주인공(차우림) 아버지의 부정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입시부정' 그리고 '자기합리화'를 리얼하게 드러낸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현아(M그룹 혼외자)와 차우림의 '그림 대작'은 고등 입시사기이다. 2차례에 걸쳐 돈거래를 통한 공모전 대작으로 현아는 특선과 2등의 실적을 거둔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입시부정으로 지목되어 우림과 현아는 학원 및 대학으로부터 제의를 당한다. 승자독식 시대, 초경쟁 사회, 황금만능 사상이 결합한 우리 교육의 적폐이다. 뼈꾸기와 감돌고기의 '착란'에 대한 자기합리화다. 이를 경계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성과 참다운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시대적 필요성을 이 책을 통해서 실감나게 느껴보기를 권장한다.

-전재학(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감)

<기획회의> 출간 500호를 기념합니다.

쉽 없이 달려온 <기획회의>가 올해로 창간 20주년, 출간 500호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잊지 않는 <기획회의>가 되고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상	증정 도서
<기획회의> 1년 정기구독	『2010년대 출판계 키워드』(가제)
<기획회의> 2년 정기구독	『2010년대 출판계 키워드』(가제), 『새로운 출판의 시도들』(가제)
<기획회의> 3년 정기구독	『2010년대 출판계 키워드』(가제), 『새로운 출판의 시도들』(가제), 『2020 한국의 논점』(가제)

*정기구독 문의 : 02-336-5675 (국순관)

*홈페이지(www.kpm21.co.kr) 통해서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정기구독료 16만 원(단권 8,000원/24회 발행 정가 19,200원)

2년 정기구독료 31만 원(단권 8,000원/48회 발행 정가 38,400원)



권정생 동화 읽기

- 이기영 (뜰배어린이문학회)

‘한 학기 한 책 읽기’가 정규 교과과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5~6학년으로, 그리고 점차 중학교 전학년 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니 굳건히 자리 잡기까지 선생님들이 준비할 것도 많고 걱정도 많겠지요.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권정생 동화 읽기’를 권하며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려 합니다.

권정생은 전쟁마당에서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태어나서 아홉 살까지 살았습니다. 해방 이듬해에 귀국해서 청송 외가 마을에서 잠시 살다 안동에 정착합니다.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6·25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권정생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서 태평양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았고, 4학년 때에는 6·25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 내내 전쟁마당에서 살았습니다.

권정생이 일본에서 겪은 끔찍한 전쟁 이야기를 쓴 동화가 《슬픈 나막신》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쓴 것에서 ‘자전 동화’라 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대구까지 피난을 갔다 돌아오는데 그 이야기는 《초가집이 있던 마을》에 그대로 썼습니다.

권정생은 어려서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병(결핵) 때문에 공부할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른 살 때에는 병이 깊어져 2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교회 문간방에 들어갑니다. 교회 문간방으로 간 이듬해 《강아지똥》(1969)을 쓰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강아지똥》이 제 몸을 녹여 민들레꽃을 피우는 것은, 권정생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가의 꿈을 이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정생은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권정생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나물을 뜯으면서, 인동꽃을 따면서, 밭을 매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아름다운 사투리로 들려준 이야기는 소설 《한티재 하늘》이 되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일부러 찾아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점득이네》에서 점득이 아버지가 소련군 총에 맞아 죽는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만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만주에서 넘어올 때 실제 본 이야기입니다.

안동 조탑리에서 일직초등학교까지는 2km가 넘습니다. 권정생은 일본에서 조금, 청송 외가 마을에서 조금 학교를 다녔으나 안동에 정착해서 다시 1학년에 입학합니다. 소년 정생은 학교 가는 길에 마을 동생들에게 이

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들려주기도 하고, 옛날이야기나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문간방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도 이야기 들려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권정생은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와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도 글로 썼습니다. 그것이 ‘권정생 동화’가 되었습니다.

권정생은 꽃 벌 달 무지개 들이 동화 속 주인공일 때 《강아지똥》을 썼습니다.

제1회 기독교아동문학상 심사위원들은 무슨 동화제목이 똥이냐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당선작이 없어 나중에야 보고 당선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강아지똥》이 처음 교과서에 들어갈 때 ‘똥’이란 단어가 걸려 제목이 ‘퇴비’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똥이 거름이 되는 존재 가치, 똥 속에서 꽃이 핀다는 인식의 깨달음은 우리 창작동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권정생이란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권정생은 “내가 쓰는 동화는 그냥 ‘이야기’라 했으면 싶다.”고 했습니다.

서럽고 가슴 뻐힌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려주는 속에서 위로를 받듯이 권정생 동화로 독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은 어린이나 어른들 모두 똑같습니다. 권정생 동화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희망으로까지 이끌어줍니다. 그럴 때 동화는 문학의 자리에 있습니다.

권정생 동화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가난하고 보잘 것 없지만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권정생 동화를 읽으면 그 속에서 권정생을 만날 수 있고, 권정생이 꿈꾸던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권정생과 함께 살아온 이웃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권정생 동화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읽을 수 있는 동화가 많습니다.

편의상 권장 학년을 적지만 꼭 그 학년에 읽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권장 학년부터 청소년 어른들까지 모두 읽을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권정생은 《사과나무 밭 달님》 ‘머리말’에서도 이 책을 청소년에게 권하며 하루에 한 편씩 천천히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준다면 높은 학년 동화를 낮은 학년 아이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높은 학년 동화라도 그림책으로 출판된 책이면 낮은 학년 아이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화를 건네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은

동화가 아이들 마음을 움직입니다.

권정생은 “동화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읽고 가슴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사과나무 밭 달님》 개정2판 ‘머리말’)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권 책을 건넸을 때, 동화 한 편을 들려주었을 때 그 동화가 아이들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울림을 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학기 한 책 읽기’를 하는 뜻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화작가라는 명성에 비해 《강아지똥》 《몽실언니》 외에 권정생 동화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권정생 동화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오래 전 이야기를 아이들이 좋아할까?” “사는 모습이 요즘과 다른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슬프고 무거운 주제를 아이들에게 쥐도 될까?”라고 말입니다.

권정생 동화는 현재 출판되고 있는 동화집 20여 권에 수록된 단편이 150편이 넘고, 장편은 10편(소설 《한티재 하늘》 포함)이나 됩니다. ‘권정생 동화 읽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힐지, 어떻게 지도할지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정생 동화를 읽는 건 언제나 오늘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 오듯이 권정생 동화도 여러분 삶에 늘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밭 한피기

권정생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밭 한피기 논 밭 한피기
그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 것은 없다.

하나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다람쥐의 것도 되고 한 마리 메뚜기의 것도 된다.

밭 한피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시집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지식산업사, 1988).

편집자 주 : 《권정생 동화 읽기》(현북스, 2019)를 참고하시면 정리된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뜰배어린이문학회가 뽑은 권정생 동화 42편 안내서’입니다. 42편 동화에 대한 뜰배어린이문학회 회원들의 글과 동화출처·정보들이 실린 책입니다. 권정생 삶을 더 알고 싶으면 ‘권정생 일대기’ (작은 사람 권정생)(이기영, 단비, 2014)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한 권으로 부족하죠!

- <삼정이 뽑은 작가 초대 행사>에 놀러오세요.

- 이민수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혁신 학교 삼정중학교 국어교사 이민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교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삼정이 뽑은 작가 초대 행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전교생이 1학기 동안 3-4권의 청소년소설을 읽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뽑아서, 작가를 우리 학교로 초대하는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도서실에서 작가초대 행사를 할 때, 사서교사나 국어교사가 작가를 섭외한 후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죠? 저희는 아이들이 직접 책을 읽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뽑아 그 작가를 만나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한 이 행사는 단순히 작가의 이야기만 듣는 강연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모아 작가님께 직접 인터뷰도 하고, 학생들이 만든 독후활동 작품(영상이나 글·그림)도 발표하고,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도 나누는 독서 축제의 한마당이랍니다.

돌아보니 제가 삼정중학교에서 아이들과 이 행사를 시작한 지도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예요. 시작은 2012년, 서울시의 후원받는 한 문화기획단체가 <청소년이 직접 뽑는 문학상 프로젝트>를 함께 할 학교를 찾다가 저랑 인연이 되어서 하게 된 것인데요, 첫해의 경험이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게 되었답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청소년문학상의 심사를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한다는 취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평소 동화나 청소년소설은 아이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쓴 작품인데, 그것을 어른인 평론가나 소설가가 읽고 뽑아서 상을 주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마침 아이들이 직접 청소년문학상을 시상한다는 점이 참신하게 다가왔죠.

첫 해에는 외부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분야 중 우수 도서로 선정된 책 중에서 후보도서를 골라 아이들에게 읽게 한 바람에 작가에게 '청소년 문학상을 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제가 읽고 좋은 책으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도 읽게 했으니, '삼정이 사랑하는 작가를 뽑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저는 이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독서 문화를 즐기고 이끄는 주체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품을 읽고 친구들과 소감을 나누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작품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전교생 투표를 통해 한 작품을 뽑아서 작가님을 만나 작품의 배경과 창작과정을 듣게 되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이면서도, 아이들에게 역동적인 체험의 장이 되기를 바랐던 거죠. 평소 교사나 부모는 아이들에게 책을 권한다는 이유로 모종의 권력을 행사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가

골라주는 책을 읽게 되고, 초등 고학년이 되면 세계 명작, 위인전을 거쳐 중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할 무슨 시리즈 등으로 이미 정형화된 책 목록에는 아이들의 선택이 없죠. 어느새 독서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과 성적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어른들의 욕심을 아이들에게 은밀하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문제풀이 기계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놀 권리, 마음대로 읽을 권리, 읽지 않을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죠. 학교 도서관에서 하는 작가초대 행사도 대부분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작가를 정하고, 관심 있는 소수의 아이들이 자리를 채우지 않나 싶고요. 저는 한 학기 동안 책을 읽고, 이것이 삼정의 작가초대 행사로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내가 뽑은 작가가 우리 학교에 온다', '이 행사는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긍지와 성취감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엔 과연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동안 이 책 읽기 활동에 참가했던 아이들, 특히 행사의 진행위원으로 활동한 아이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제 바람은 다행스럽게도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엔 무대에 올라가 진행을 맡았던 아이들뿐 아니라, 관객으로 참여했던 아이들도 해마다 이 활동이 재밌었다, 좋았다는 평을 하는 이유는 행사 내내 온전히 아이들의 손에서 손으로 마이크가 옮겨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교사는 행사 당일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쓴 연극대본으로 오프닝 공연을 하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쓴 감상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독후활동으로 만든 영상이나 글 우수작 발표도 하고, 작가의 강연을 들은 후에는 인터뷰와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작은 상품이 걸린 독서 퀴즈도 하다 보니, 전교생이 즐기는 독서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을 맡는 것은 1학년 아이들이랍니다. 1학년 독서동아리 아이들 중에 자원하는 아이들로 팀을 꾸려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 아이들은 전교생이 모이는 큰 행사를 자기들의 힘으로 해냈다는 것에 엄청난 뿌듯함을 느낀답니다.

행사 전날엔 리허설로, 행사 당일엔 강당 뒷정리와 평가회로 늦게까지 집에 가지를 못하는데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죠. 몇 달간 준비한 과정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에 대한 벅찬 감동,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으로 빛나는 얼굴들, 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스스로 해냈다'고 느끼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맛에 지금까지도 해마다 지치지 않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아이들을 믿고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아이들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지, 구체적인 방

법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15년 전부터 제가 들어가는 반 수업에서 주1회 1시간을 빼서 독서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부터는 아예 전교생의 1주 1차시 독서수업을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삼정중학교 국어과 선생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협력 덕분에 제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삼정이 뽑은 작가 초대 행사>를 시작한 처음 3년은 제가 한 학기 동안 읽을 책으로 4권을 골라주고 이 책을 다 읽은 아이들이 작가 선정 투표를 해서 한 명의 작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소년소설이 다루는 분야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요. 기존의 성장소설, 즉 친구나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노동문제, 낙태, 동성애, 성형수술, 다문화, 탈북, 장애, 반려견 등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청소년소설을 접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작년부터는 1차 투표와 2차 결선투표를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즉, 3월에 8종의 책을 모듬 인원수에 맞게 준비하죠. 그럼 이 책을 8개 모듬이 한 종씩 선택하여 함께 읽고, 모듬별로 읽은 책 홍보하기 3분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읽지 않은 책이라도 친구들의 발표를 보면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 1차 투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3권의 책이 결정되면, 이 책은 모듬을 나누지 않고, 전교생이 다 같이 읽은 후에 결선투표로 1권을 뽑아 초대할 작가를 정한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기말고사 전에 초대작가가 결정되어 섭외를 하고, 행사 날짜를 확정하죠. 아이들은 방학까지 이어서 독후활동으로 글, 그림, 영상 중에 자신 있는 분야로 작품을 만들어오면, 2학기 초에 행사를 할 때는 이 작품들이 당일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독후활동 작품을 완성할 시간이 부족해서, 방학과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해마다 아이들이 개학식에 제출하는 작품을 보면 넉넉한 제작 시간을 주길 잘했다 싶어요. 분야만 정해주고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작품을 만들지는 자유롭게 하는데요, 글도 물론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오지만, 특히 영상이나 그림의 경우는 제가 상상도 못할 훌륭한 작품들이 나온답니다. 영상 중 우수작품은 행사 중에 다 같이 감상하고, 글은 당일엔 낭독한 후 작가님께 롤링페이퍼와 함께 선물로 드리고, 그림은 행사 포스터로 사용하니, 아이들의 작품 덕분에 행사가 아주 풍성해지게 되죠.

올해의 프로젝트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4월에 말에 모듬 책 홍보하기와 1차 투표로 후보도서 3권이 확정되었고, 이제 최종투표를 위해서 3권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올해 1차 투표로 아이들이 선택

한 책은 <톡톡>(공지희, 자음과 모음, 2015),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최나미, 사계절, 2019), <아빠와 나 그리고 아빠?>(이기규, 휴먼어린이, 2018)이에요. <톡톡>은 미혼모의 낙태 문제를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해 그려낸 책이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은 학교폭력 문제, <아빠와 나 그리고 아빠>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책이에요. 세 권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들인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아 재미있게 읽히면서도, 주제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들이랍니다. 시험과 연휴로 1주일을 쉬다가 다시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몰입해 읽는 걸 보면 책의 힘이 크다 싶어요.

아이들은 이 중에서 어떤 책을 뽑을지, 작가 초대 행사의 주인공을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니 긴장과 동시에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40분간 책을 읽고, 마지막 5분은 그날 읽은 부분에 대한 감상을 간단히 쓰게 하는데, 수업 종이 쳐도 일어나지 않고 고심하며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원칙은 수업시간에만 읽는 책인데, 집에서 읽고 싶다면 빌려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재밌는 드라마는 끝날 때의 아쉬움으로 다음 한 주를 기다리듯이, 저희 학교도 독서 수업시간에만 책을 읽게 하니, 아이들이 더욱 궁금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해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후보도서인 작품이 다르고, 아이들도 다르니 저 또한 올해는 어떤 작품이 아이들의 선택을 받을지, 어떤 작가분이 우리 학교에 오지게 될지,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오셨던 <해리엇> 한윤섭,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이경혜, <키싱마이라이프> 이옥수,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의 문영숙, <옆집 아이 보고서> 최고나 작가님을 떠올리면, 한 분 한 분 개성 있는 목소리로 본인들이 살아오신 이야기와 작품 이야기를 정성껏 나눠주셨어요. 최종 투표로 초대할 작가님이 결정되는 날, 제가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드리면서 작가님을 어떤 과정을 거쳐 모시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면 작가님은 무척 기뻐하시죠. 행사 당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의 진행과 발표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특히 본인 작품을 얼마나 꼼꼼히 읽고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는지 눈에 보여서 작가님들은 정말 행복해하셨답니다. 올해는 공지희, 최나미, 이기규 세 분 중 어떤 작가님이, 자신이 쓴 작품이 아이들에게 선택받는 영광을 누리실지 궁금합니다. 최후의 1인이 결정되는 날, 작가님께 초대를 청하는 연락을 드리면 반갑게 응하실 모습이 그려져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올해도 최종투표는 6월 말, 작가초대 행사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삼정이 뽑은 작가 초대 행사>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고요? 청소년 소설을 읽으며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삼정중 학생들, 한 학기 동안의 독서활동을 작가 초대 행사로 멋지게 갈무리하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면 삼정중으로 놀러오세요. 와서 한 번 보신다면, 선생님께서도 한 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이들만 믿고 한 번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살면서 고개를 들 거라 믿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삼아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선생님~



2019년 8월 30일 삼정중 작가초대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년간 참여한 삼정 작가초대행사

삼정중학교 3학년 서현석

이번 작가초대행사의 주인공은 '아빠와 나 그리고 아빠?'라는 책을 쓰신 이기규 작가님이셨다. 이 책의 주제는 동성애인데 나를 재미있게 봤던 책이라 작가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되었다. 이번 작가초대행사 역시 작년, 재작년처럼 빼놓을 것 없이 알찬 행사들이 많았다. 그중에도 단연 기억에 남는 행사는 바로 작가님 강연이었다. 이기규 작가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업이시지만 글을 쓰셔서 책도 내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작가님들보다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자신이 잘한 점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글을 쓰기 싫을 때도 있다', '책이 잘 안 팔린다', '출판사한테 보낸 글이 거절당할 때도 있었다' 등 부족한 부분을 얘기 해주신 점이 강연 내내 인상 깊었다. 또한 작가님 책 소개를 들 때 소수자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힘이 될 만한 책들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와 나 그리고 아빠?'라는 책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런 주제의 책을 읽을 때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낄 법도 한데 나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더 신기한 것은 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책을 끝까지 보았을 때 성소수자들을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작가님의 강연을 들면서 새삼 느낀 것은 소수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잘 쓰시는 작가님이 대단하시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입학한 해부터 매년 작가초대행사에 참여했다. 1학년 때는 작가초대행사를 직접 준비하였기 때문에 힘든 면도 있었지만 작가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보시고 행복해하실 때 뿌듯했다. 2, 3학년이 되어서는 후배들이 행사를 이끄는 모습을 보고 흠뻑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가 거듭할수록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지만 작가님의 강연, 또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노력은 변함없다고 생각한다. 올해가 나의 마지막 행사인 것이 아쉽지만 3년 동안 작가님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나중에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같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작가초대행사

삼정중학교 1학년 최수아

내가 독서동아리에 들어와서 제일 기대되었던 건 바로 작가초대행사였다.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점이 재밌어 보였다. 전교생의 투표로 '아빠와 나 그리고 아빠?' 이기규 작가님이 오시기로 결정되자, 우리 동아리는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른 독서동아리 친구들까지 모두 18명이 모여 역할을 정하는 회의를 했다. 나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힘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친구들이랑 하는 연극 연습이 가장 재미있었다. 내가 '효이' 역을 맡아서 하는 거라서 대사도 많고 긴장도 되었지만 친구들과 다 같이 하니 신나고 즐거웠다. 대사도 자주 하다 보니 금방 외워져서 더 쉽게 했다. 행동으로 해보니 실감나고 공연하는 날이 기다려졌다.

또한 소감문 영상을 만드는 과정도 힘들어도 행사 당일엔 다 같이 보니 뿌듯했다. 이렇듯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힘든 점도 있었다. 소감문 영상은 전교생이 수업시간에 쓰느라 점들을 정리하여 영상으로 만드는 것인데, 먼저 핸드폰으로 만들었다가 글씨 크기 때문에 다시 컴퓨터로 만들다 보니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선생님이 해주신 피드백에 따라 수정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들었다. 영상을 만들고 난 후에는 퀴즈도 만들고, 개학을 한 후에는 연극 연습으로 방과 후에 남아야 해서 늦게 가는 날이 많았다.

행사 날을 위해 계속 준비하고 리허설 할 때는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정작 행사 당일 무대에 서니 말도 더듬거리고 긴장도 됐다. 다른 친구들은 긴장이 되었어도 잘 해주었는데, 주인공을 맡은 내가 실수를 해서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잘 했다고 해주어서 고맷다. 연극이 끝나고 진행, 퀴즈, 소품과 선물, 조명, 인터뷰, 작가님 소개 등의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잘 해주어서 행사가 재밌게 끝났던 것 같다. 물론 선생님께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었던 것 같다. 행사 준비를 위해 열심히 해준 친구들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선생님께도 잘 끝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학도넷 소식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9년 3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봄호 발행(총권 48호)
- 2019년 4월 21일 학도넷 "한학기 한권읽기" 실천사례 공모
- 2019년 5월 18일 학도넷 만남과 바람 "여성독립운동가를 찾아서"
- 2019년 5월 27일~7월 22일 학도넷 그림책 연수 "그림책과 인생"
- 2019년 6월 7일 학도넷 "한학기 한권읽기" 실천사례 공모 선정작 발표
- 2019년 6월 8일 학도넷 만남과바람 "여성독립운동가를 찾아서2"
- 2019년 6월 15일 학도넷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 2019년 7월 7일~7월 11일 중국 조선족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연수 심양소가툰구에서 진행
- 2019년 8월 5일~7일 학도넷 여름방학 사서연수 "학교에서 그림책 만들기"

신입회원 (2019년 3월~8월)

정회원 : 김미향 김명화 김수현 김연옥 김윤주 김원형 박규리 박현숙 박효정 오은숙 이남지 이우리 이수경 이영인 이은옥 임재연 장세정 함정희 홍용란

웹회원 : 정미자 서은미 김영수 조경미 이수희 강진희 우미선 장수정 손수빈

회비 및 후원내역 (2019년 3월~8월)

정회원 회비

- 매월 3천원 : 고은 김미령 김미영 김미향 김원형 김지순 남경화 박규리 박영혜 박인자 박정미 박종숙 박현주 성양기 신수인 신재희 오계화 윤정숙 염효경 이영인 이영희 이유나 이은옥 이민문 이재경 장버리 조성우 최선옥 최유미 최창희 함정희 홍선희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정미 광정은 구미숙 권도경 권사에 길미숙 길영희 김경숙(보령) 김경진 김경하 김누리 김대경 김동훈 김리라 김명화 김선영 김소원 김수연 김수현 김심환 김영신 김윤주 김은승 김은영 김은하 김정숙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선미 박은하 박준섭 박현숙 박효정 백경숙 백연주 서미혜 서은주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명원 송숙영 송윤서 송혜영 신영숙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형란 안경애 안정원 안희정 양은주 유미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윤소영 이금화 이규선 이남지 이미순 이선화 이수경 이신애 이영선 이영주 이유정 이은혜 이주영 이진옥 이현 이현애 이혜진 임경순 임재연 임지은 장부자 정명하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은희 정해선 정혜련 조영순 주상태 진은진 차진미 채재현 최민영 최은규 하은경 한은미 홍용란 황동욱 황순영 허지은 허지연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항미 김경숙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종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샘 박영옥 박정혜 변영미 백화현 송추향 안미정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덕주 이문숙 이미경 이민수 이소연 이영주 이재선 이찬미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최진영 한명숙 허경림 황봉희
- 매월 2만원 : 김순정 박은숙
- 매월 2만5천 : 김효숙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매월 5만원 : 이우리
-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원) 비룡소(매월 10만원)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제희(2천) 장한솔(2천)
- 후원 : 백화현(10만) 전국학교도서관모임(50만) 남경숙(10만)
- 소식지 광고후원 : 고래가숨쉬는도서관(50만)
- 저자 책후원 : <코스모스스쿨7>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저자 안재희 선생님(50천)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1+1=하나(영세종립이야기)(누리살림)/10대와 통하는 건축으로 살펴본 한국현대사 (철수와 영희)/10대와 통하는 생물학이야기(철수와 영희)/10대와 통하는 스포츠이야기(철수와 영희)/10대와 통하는 평

화통일 이야기(철수와 영희)/2230자(김인국칼럼집) (철수와 영희)/ 검은시의 목록(견는사람)/과학책수다(사이언스북스)/광화문 골목집에서(시공사.최은규)/괴물들의 저녁파티(북극곰)/권정생동화읽기/(현북스)/꿀벌의 노래(북극곰)/꿈이 자라는 방(샘터)/나는 개다(책읽는곰)/나의 미누삼촌(우리학교)/남달리와 조잘조잘 목소리(바람의 아이들)/너희를 멀리 보낼 수가 없다(견는사람)/다시 빨강 책(북극곰)/다시, 책으로(에크로스)/달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면?(풀빛)/도시에서 만난 야생동물이야기(철수와 영희)/독서동아리 100개면 학교가 바뀐다(학교도서관저널)/라일락 걸스 1-2(견는 사람)/마음을 잡으러 가는 아이(바람의 아이들)/마지막 가족 여행(별숲)/무르더더 티렉스의 가족앨범(북극곰)/문을 열어(낮은산, 황동진)/바이러스를 막아라(별숲)/방귀쟁이 할머니(바람의 아이들)/백만불짜리 글쓰기 습관(인물과 사상사, 박은진)/보일아저씨네 유리온실(김영사)/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어린이(산하)/비밀지도(샘터)/불이 꺼지면(내인생의책)/빨간 우산(별숲)/빨강 책(북극곰)/삶(북극곰)/새로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철수와 영희)/생일 축하해요(바람의 아이들)/선생님, 미디어가 뭐예요?(철수와 영희)/선생님, 평가가 뭐예요?(철수와 영희)/세상을 읽는 커다란 눈 알고리즘(다림)/소녀B가 사는 집(견는사람)/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되었습니다.(견는사람)/아빠 쉬는 날(북극곰)/아삭아삭 문화학교(동녘주니어)/앤티아 커서 뭐가 뭘래?(바람의 아이들)/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학교도서관저널)/예쁜것만 좋아하는 생쥐 웅아(바람의 아이들)/올리브가지는 소녀(양철북)/완벽해(북극곰)/우리시대 혐오를 읽다.(철수와 영희)/울타리 너머(북극곰)/이제 돌고래는 자유나(별숲)/이해없이 당분간(견는사람)/인형의 냄새(별숲)/일종하는 언니들이야기(글라이더)/자꾸만 눈물이 나(답게)/조이(바람의 아이들)/지구를 지키는 자연탐구 50(아울북)/질문하는 과학실(뜨인돌)/코스모스스쿨7(50권)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안재희/큰빨(평사리)/투명의자(별숲)/편순이 알바보고서(글라이더)/하루 한 권, 그림책 공감수업(학교도서관저널)/환상의 짝꿍(북극곰)/휘경이와 꼬마쥐(밝은미래)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게간 고래가숨쉬는도서관/월간 개똥이네 놀이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월간 학교도서관저널/어린이도서관구회 '동화읽는어른'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9 학도넷 <한학기 한권읽기> 실천사례공모 선정작 발표했습니다.

- **마중물상(좋은책 30권과 상장액자)**
- 좋은 동화를 끝까지 읽으면 행복해요. / 김경숙(보령지역 공공도서관 강사)
- "도서관 책벌레를 키우는 한 권 읽기" / 김길순(수원 율현중학교 사서)
- 하루하루 / 김애연(수원 수일고등학교 국어교사)
- 특성화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도서실 책으로 진로 독서 수업하기 / 김지은(수원 대평고등학교 교사)
- 돌맹이국으로 시작하는 온 책읽기 / 박규리(서울 신상계초등학교 교사)
- 꿈의학교 <몰입독서> 이야기 / 이규선(서산 꿈의학교 독서교사)
- 한 학기 한권으로 부족하죠! - <삼정이 뽑은 작가 초대 행사>에 놀러오세요. / 이민수(서울 삼정중학교 교사)
- 삶의 가치와 자연의 가치를 기억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 이재영(요한기독교학교 국어교사)
- 꿈꾸며 실천하다. '지속가능하고 만만한 책읽기수업' / 조경은(서대전고등학교 교사)

학도넷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했습니다.

-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자유롭게 자발적인 책읽기>
- 때 :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30분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미나실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후원 : 도서출판 보리

학도넷 총회에 책 보내주신 곳

보리출판사 책 615권/ 월간 개똥이네놀이터 잡지/ 사계절(책 읽는 학교를 위한 '한 학기 한 권' 독서지도안)

2019 학도넷 만남과바람 했습니다.

- <여성독립운동가를 김관사지사를 찾아서 1>
- 강사 : 황동진 선생님(서울교육박물관 학예연구사/그림책작가/김관사특별기획전기획)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10시~15시
- 찾아가는 곳 : 서울교육박물관 - 점심 - 정동교회 - 이화박물관

<여성독립운동가를 오희옥 지사를 찾아서 2>

- 이끔이 : 이윤옥 박사(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 찾아가는 곳 : 중앙보훈병원

2019 학도넷 그림책연수 했습니다.

- <그림책과 인생>
- 강사 : 김서정 선생님(아동문학가, 중앙대 외래강사)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19년 5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6회 저녁 6시 30분~8시 30분
- 곳 : 서울NPO지원센터 강의실 '주다'

2019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도서관 운영교육연수 진행했습니다.

- 올해로 5년째 동북3성 조선족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운영교육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룡녕성 심양시교육연구원 주최로 <독서캠프 속으로 풍덩~>을 주제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학도넷 운영진이 연수를 기획, 진행 했습니다.
- 때 : 2019년 7월 8일~7월 10일
- 곳 : 중국 룡녕성 심양시 소가툰구조선족소학교

조선족학교도서관연수 후원해주신 곳

이번 연수에 고마운 출판사들이 예코백을 비롯해 예쁜 기념선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즐겁고 풍성한 연수가 되었습니다. <창비, 비룡소, 사계절, 보리, 노란돼지, 반달, 책빛, 고래뱃속, 책속물고기, 키 큰도토리, 천개의바람> 고맙습니다.

학도넷 2019 여름방학사서연수 했습니다.

- <학교에서 그림책 만들기>
- 강사 : 이우리 작가(북극곰 편집장/프레드릭 그림책서점 대표)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19년 8월 5일(월)~7일(수) / 10시~17시
- 곳 : 이우리의 그림책서점 '프레드릭'

학도넷 여름연수 후원해주신 곳

그레이트북스(우주로 간 멍멍이), 금성(DREAM BOOKS 미니명작, 한국문학, 고려왕비열전) 마음의숲(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보리(개똥이네놀이터)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